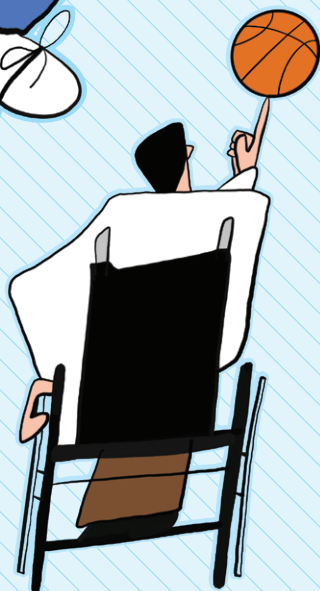


문화인류학으로 청소년 삶 읽기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독후 활동
자료

사파게절



“자기소개를 해 볼까요.”

이 말이 식상하고 어렵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름, 학교, MBTI…… 이게 정말 나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늘 ‘나’로 살아왔기에 스스로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나’는 가장 알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깊이 알려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즉 나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맺는 관계,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은 이래야 한다’는 뻔한 결론 대신,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 그런 것’ 속에 숨겨진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깨닫고, 복잡하고 다양한 나와 타자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문화인류학으로 청소년 삶 읽기』

함세정 지음

활동 1. 나를 찾아 떠나는 정체성 탐험

(1) 말문이 막히는 순간: '나답게'가 어려운 이유

청소년들은 가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던 유성도 그랬습니다.

“가끔 친구들은 ‘주장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게 말한다. 늘 자기들만 얘기한다고, 내 얘기를 해 달라는 친구들. 내가 불편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혼자 앓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데, 나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무서웠다고 해야 할까. 나보다 더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해 보고 대답을 한다. 내 주장이 틀려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반응을 보는 게 나에게는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내 입은 잘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들을 미루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난 가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58쪽

1.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말문이 막혔나요?

(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부모님과 의논할 때, 단체 채팅방에서, 학원에서 등)

2. 그때 왜 말하기가 어려웠나요? 어떤 걱정이 들었나요?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해 보세요)

- ☐ 내 의견이 틀리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봐
- ☐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 ☐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 ☐ 다수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
- ☐ 남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무서워서
- ☐ 기타: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하는 교실이나 기업 문화와 부딪치곤 합니다.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특정한 성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키가 평균보다 훌쩍 큰 여학생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여성의 몸은 작고 가냘프고 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 영향을 미치고, 성소수자 청소년이나다움을 찾는 과정에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와 문화가 압력으로 작동하듯이 말입니다. ‘나다움’을 찾으려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59~60쪽

3. 위의 글에서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심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문이 막혔던’ 그 순간, 나를 눈치 보게 만든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기준’이나 ‘압력’은 무엇이었나요? (예: 늘 긍정적이고 밝아야 한다, 돈이 많아야 멋진 사람이다,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생이다 등)

(2) 여기서는 이런 나, 저기서는 저런 나: 나의 여러 가지 얼굴

학교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그리고 편한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는 제법 다른 사람이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따라 나는 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성적 등급조차도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 9등급이 그다지 중요한 요건이 아니듯이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1등급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역시 여러분이 베트남에 있을 때와 프랑스에 있을 때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지는 나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둘러봐야 하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어떤 사회와 문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5쪽

1.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나의 모습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캐릭터를 생각해 볼까요? 나의 캐릭터 모드(MODE)의 특징, 주요 대사, 아이템 등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채워 보세요!



캐릭터 모드	나의 모습	특징 & 주요 대사
[예시] 집 모드	편한 옷차림, 안경 쓴	• 특징: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경계 태세 • 주요 대사: “아, 배고프다...”, “내버려 둬...”
집 모드		• 특징: • 주요 대사:
학교 모드		• 특징: • 주요 대사:
‘찐친’ 모드		• 특징: • 주요 대사:
온라인 모드		• 특징: • 주요 대사:
부계(비계) 모드		• 특징: • 주요 대사:

2. 각 모드는 어떻게 달랐나요? 빈칸을 채우면서 어떤 페르소나들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적어 보세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우리가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가면으로 사회적 자아를 연출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person’은 가면을 뜻하는 고전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 벗었다 하던 가면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 또는 자아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바꿔 쓰는 역할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75~76쪽

(3) 얼룩덜룩해서 더 아름다운 나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좋아하게 되었나요? 나에게 중요한 기억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나요? 나의 스타일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나답게 되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나요?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나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류학자 애나 칭은 송이버섯의 생태를 통해 우리가 이미 다른 것과 깊이 얽혀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송이버섯은 인간의 무차별적인 산림 벌채로 황폐해진 땅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뿌리에 붙은 송이균이 나무와 공생하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바다 건너로 유통되고요, 이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존재들은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마주치며 서로를 변형시킵니다. 송이버섯이 인간, 땅, 곰팡이와 소나무의 마주침을 통해 자라듯이 우리의 삶 역시 다양한 오염과의 마주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61~62쪽

1. ‘나다움’이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나만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이 나무, 흙, 곰팡이와 얽혀 자라나듯, 나 역시 수많은 만남과 경험에 의해 ‘오염’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를 ‘오염’시키고 ‘변화’시켜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것을 모아 ‘나의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중앙에 ‘나’를 그리고, 가지를 뻗어 나가듯이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이나 경험, 사물, 장소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지도에 들어갈 요소 예시]

사람: 가족, 친구, 선생님, 좋아했던 연예인

경험: 많이 웃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칭찬받았던 기억, 동아리 활동

사물: 인생 책, 내 플레이리스트,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 즐겨 하던 게임

장소: 우리 동네, 학교, 학원, 할머니 댁, 나만의 아지트

2. 나의 지도를 그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 것들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3. 다른 사람이나 경험에 의해 ‘변화하고’, ‘오염되고’, ‘혼란스러운’ 나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가요?
나에게 한마디 해 준다면?



활동 2. 나는 비정상인가?: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시선

(1) 나만 이상해? ‘비정상’ 빙고 게임!

때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마치 검은색과 흰색처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심장 박동 수나 혈압처럼 정상은 분명하게 측정 가능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평균보다 많거나 적으면, 혹은 일반적이지 않다면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비정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면 소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평균보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몸집이 너무 작거나 커서, 2차 성징이 빠르거나 늦어서, 말수가 적거나 많아서,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빨라서, 감정 표현이 작거나 커서 비정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통 한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비정상 꼬리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키가 평균이어도 관심사는 독특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이 일반적이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동성일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 안에도 사회만큼 다양한 면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44~45쪽

1. ‘비정상’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조금씩 ‘비정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래 빙고판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칸에 자유롭게 ○표시를 해 보세요. 몇 개의 빙고가 만들어지나요?

평균 키보다 크거나 작다.	나는 남들보다 감정 표현이 크다 (또는 적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대화가 어렵다.
연애에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
드라마 속 가족(엄마, 아빠, 나, 동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	나는 사실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남들 눈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자주 한다.

2. 빙고를 몇 줄이나 완성했나요? 이 게임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3. “비정상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2) 이건 누구의 ‘정상’일까? 관점 바꿔 보기

어른들은 청소년의 의사소통 방식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종종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그 사람을 진단 또는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죠. 살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보다 스마트폰이라는 무생물에 집중한 상태는 비정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필요한, 더 중요한 인간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친한 친구가 게시물을 올려 바로 반응을 해야 하는 타이밍처럼 말이죠. 정말 친한 사이라면 3초 또는 30초 안에는 반응을 해야 상대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있거든요. 또한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의 명예 또는 체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의 평판 관리는 긴밀한 대응과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의사소통 방식과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45~46쪽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른들 눈에 ‘중독’ 혹은 비정상적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떤 ‘정상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미국 뉴멕시코 지역의 원주민 주니족, 캐나다의 콰키우틀족, 그리고 뉴기니의 도부족을 연구하며 각 사회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주니족은 이성을 중시하고 과잉을 경계하며 권력과 폭력을 경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권위를 경계하기 때문에 젊은이가 어른들의 인정을 받는 성년식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도부족은 가까운 사람조차도 의심하고 경계하며 악의와 배신을 일종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작물이 잘 자라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일도 누군가의 적개심에서 비롯된 주술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콰키우틀족은 경쟁자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니족의 삶의 방식이 도부족에게 상식적으로 보였을까요? 콰키우틀족의 삶은 주니족의 기준에서 보통이었을까요? 한 부족에게 다른 부족의 삶의 방식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50~51쪽

2. 만약 ‘주니족’ 사람들이 ‘콰키우틀족’이나 ‘도부족’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3. 자문화중심주의적 시선(예: 정상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한다 등)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 ‘정상’이라는 좁은 틀의 위험

‘나는 비정상인가?’라는 질문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상한가?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모두 웃고 있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질문은 마음을 괴롭힙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왜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두려울까요. 어떤 마음에서 무서울까요.

—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49~50쪽

1. “나는 비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정상’이라는 좁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왜 위험할까요? 이런 태도는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 ‘비정상’이라서 더 멋진 우리

흥미롭게도 우리는 서로가 조금씩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쉽게, 더 깊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상/비정상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의 세계를 조금 더 넓혀 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세상을 만나게 하면서 말입니다.

—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52~53쪽

1. 누군가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고 받아들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가요?

2. ‘정상’이라는 답답한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지치고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던 누군가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활동 3. 질적 연구: 문화인류학자의 안경 쓰고 세상 보기

2.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으로만 나를 이해하면 어떤 점에서 부족할까요?

(1) 나의 빙산 그리기

1. 아래 빙산 그림에 나의 모습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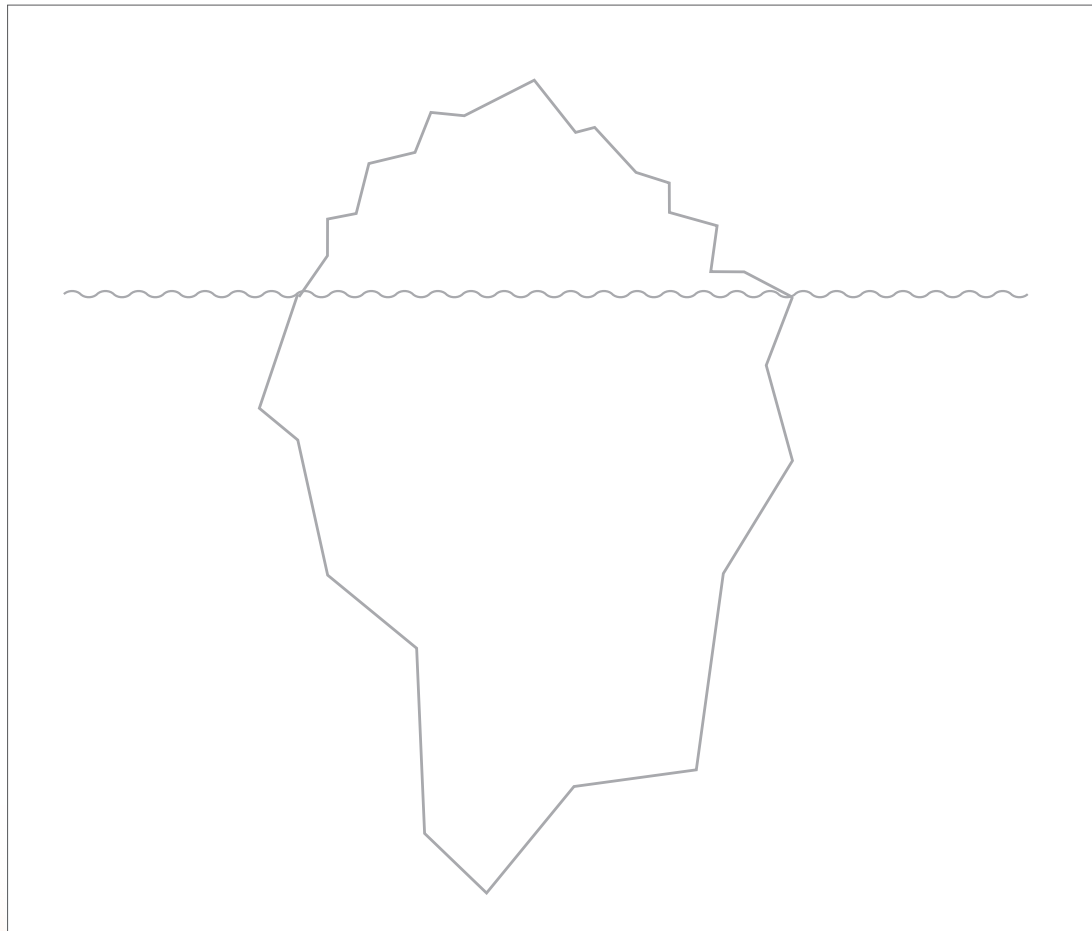
[수면 위 – 숫자로 드러나는 나] 숫자로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세요.

(예: 학교, 학년, 키, 기상 시간, 시험 점수, SNS 친구 수 등)

[수면 아래 – 이야기로 만나는 나] 나를 이루는 중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예: 남몰래 하는 걱정, 자주 느끼는 감정, 친한 친구, 좋아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사소한 재능, 나의 소원, 상처, 버릇)

3. 수면 아래 부분을 채우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2) 그건 무슨 뜻이야?: 행동 속에 숨은 의미 찾기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즈는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관찰을 넘어 행위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눈을 깜박이는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을 깜박이는 행위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일어난 단순한 신체 반응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나 암묵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죠.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128~129쪽

1. 아래에 제시된 행동에 담길 수 있는 다른 의미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행동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	(여러분이 상상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의미
혼자 말없이 가만히 있는 친구	(예)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	(예) 여기 너무 편하다. 다른 데서는 활발한 척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
진로 선택 기준은 돈이라고 말하는 친구	돈이 제일 좋다.	
우울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솔직하지 못하다.	

(3)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미니 연구 체험

질적 연구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험, 감정, 과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맥락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관점을 이해하고,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질적 연구에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그 가운데 면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가 직접 만나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생각, 감정, 경험, 가치관 등을 상세하게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연구자가 던지는 질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되고 재구성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객관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문지와는 다르지요.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132~133쪽

면담은 ‘질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직접 연구자가 되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미니 연구를 해 봅시다!

1단계: 연구 주제 정하기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주세요.

- 1) 등굣길에 무슨 생각 하세요?
- 2) 친구들과 뭐 하고 놀아요?
- 3)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나요?

나의 연구 주제:



2단계: 질문 만들기

‘네/아니오’로 답하는 질문 말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열린 질문’ 3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X) 아침에 피곤하지? → (O)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줘, 등굣길에 주로 보는 풍경은 뭐야? 오늘 아침에는 무슨 생각 하면서 왔어?

3단계: 짝과 함께 인터뷰하기

짝과 역할을 바꿔 가며 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세요. 인터뷰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짝의 이름:

인터뷰 내용:

4단계: 연구, 그 후의 나

방금 진행한 미니 연구 경험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연구자로서: 친구의 대답이 내 예상과 달라서 놀랐던 부분이 있나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친구에 대해, 혹은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2) 정보 제공자로서: 누군가가 나의 사소한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귀 기울여 들어 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사계절출판사의 책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지구인이 알아야 할 인류 문화 이야기

이경덕 지음

이 책은 새로운 정착지로서 지구를 발견한 외계인들이 인류와 어울려 살기 위해 인류 문화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소설적 가정을 바탕으로 인류학의 지식과 통찰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가상의 외계인 보고서를 통해 사회화, 문화의 교류와 변화, 성 역할, 어른 되기, 놀이와 축제, 결혼과 가족, 권력의 종류, 종교의 역할 등 인류 문화를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이경덕 지음
독서 지도와 다독로드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경제 편 -행복한 지구 생활을 위한 경제생활 십계명

이경덕 지음

외계인이 지구에서 경제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구에 정착해 살아가는 외계인이 쓴 가상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역사와 본질, 문제점과 미래를 성찰한다. 신용과 화폐, 부채, 재분배, 노동, 소비, 공유 경제 등의 키워드를 '경제생활 십계명'에 담아 인류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지구 경제에 필요한 가치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의 방향과 사회에 대한 다채로운 관점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경덕 지음
독서 지도와 다독로드



우리들의 비밀 놀이 연구소 -심대를 위한 놀이 인류학

조유나 지음

집-학교-학원 도돌이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박명수는 카메라를 사기 위해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좀 수상쩍다. 어느 인류학 박사가 공고를 낸 이 아르바이트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놀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아 오라는 것이었다. '놀이 연구소'라는 유령 동아리를 만든 명수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하며 공부도 놀이처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놀이를 외면하고 억압하다 보니 오히려 나쁜 놀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조유나 지음
독서 지도와 다독로드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 추천의 글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자아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는지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책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과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제로 ‘다른 위치를 상상하는 연습’을 하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인류학의 개념도 알려 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류’의 보편성과 ‘나’의 고유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밑바탕이 될 소중한 감각과 지식이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자신과 세계를 낯설게 보고 재구성하는 것은 청소년의 특권 아닌가. 그 단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지적인 쾌감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김소영 (작가, 『어린이라는 세계』 저자)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책이다. ‘나’와 세상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며 조곤조곤 말을 건다. 이 기적은 삶에 예측 불가능성을 끌어들이는 때,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뻔해 보이던 ‘나’와 세상을 낯설게 읽을 때 찾아온다. 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문화인류학의 언어를 통해 전한다.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은 세상이 정해 놓은 정답을 뒤집어 볼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시간 청소년 곁에서 ‘친근한 외부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따라가 보자. ‘나’와 세상에 용기 있는 ‘낯선 내부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과 그들의 삶에 무례하지 않은 ‘친근한 외부인’이 되고 싶은 비청소년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엄기호 (문화 연구자,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저자)